

## ● 병실의 환경관리



애정에 넘친 기쁜 마음으로

### 병실의 환경관리 / 맹광호

국민학교 6년, 그리고 중 고등학교 6년간을 졸업 개근 했던 절보면 나는 어린시절을 비교적 건강하게 보냈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12년씩 개근한 학생이 실상 그리 많지 않았다는 기억과 요즈음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을 문병 다니던 적잖은 기억들이 더욱더 내가 남보다 건강한 편이었음을 입증해 주는 셈이 된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

스런 예기지만, 이렇게 친구들 문병을 다니면서 나는 때때로 나도 한번쯤 저렇게 입원해 봤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그들이 부럽다고 생각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상쾌한 기분이 나는 깨끗한 병실 그 하얀벽과 말끔히 닦아진 넓은 유리창, 그리고 그 폭신평신했던 침대와 머리맡에 놓인 꽃병에 담뿍꽃힌 예쁜꽃들. 게다가 예쁘고 친절하던 흰 유니폼의 간호원 누나들.

이 모든것은 거의 예외적 이랄수 있는 분위기를 나에게 늘 느끼게 했고, 이 분위기에 한번쯤 싸이는건 딱 기분좋은 일일거라고 생각했다.

이 <예외적인 분위기>. 즉 깨끗하고 상쾌한 병실내부와 환경미화 그리고 매사에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식사와 잠자리, 이 모든것이 그러나 결코 예외적이 아니며 환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조건이라는 것을 깨닫게된건 아마도 내가 의대생이 된 뒤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두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던 일하며 심한 감기나 몸살로 몇번 집에 앉아 누워 본 뒤로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병실의 환경관리는 단지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상쾌한 기분만을 주기위해 꾸며지는건 아니다.

그보다는 질병으로 인하여 저항력

## ●가정요법 특집

이 매우 악화된 육체를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나 일단 병으로 앓아누워있는 상태가 되면 평소 전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던 일들, 예전엔 실내의 조명이라든지 창밖의 소음, 그리고 별로 심하지 않은 기온의 차이 까지도 병의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걸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질병에 의해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가 있다.

병실의 환경조성에 어떤 공식이 있는건 아니다.

그것은 병의종류나 증상의 정도 그리고 환자의 성격따위 개인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학적 측면에서 병의 악화를 조래하거나 회복을 늦추는 일들을 막는일은 매우 중요하며 환경관리라는 것도 말하자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하나의 조치라고 할수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의 환경조성 가운데는 우선 환자를 피로하게 하는 요소의 제거를 들수 있다.

창문이 없는 갹갹한 방이라든지 주위가 몹시 시끄럽다던지 실내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또는 환자의 눈을 직접적으로 심하게 자극한다거나 하는 환경등은 모두 환자를

피로하게 한다.

환경과는 별개문제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자주 문병을 오는것도 환자에게는 그리 좋은편이 아니며, 집안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에게 하루종일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일도 좋지가 않다.

둘째는 병실을 깨끗이 하고 환기를 잘 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여러가지 세균의 발육과 번식을 막고 환자에게 명랑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점에서, 문병은 사람들이 환자 앞에서 마구 담배를 피워대는 일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

좋은 공기를 자주 갈아주는건 중요하다지만 너무 심한 외부온도의 변화에 환자를 직접 노출 시키는 일은 피하는게 좋다.

이외에도 창문을 깨끗이 해서 햇볕이 잘들게 하든지, 환자가 쓰는 수건등을 늘 깨끗이 해야하는등 여러가지 구체적 환경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도 환자를 정신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수는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환자를 위한 어떤 환경정리도 애정에 넘친 기쁨마음으로 할때야 그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필자=가톨릭의대 조교수·의박>